



心實愛世
攝信慈度

본회는 동문상호간의 우의증진과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한다.
1976. 10. 15. 등록번호 라-2143호·월간·비매물

東友會報

1989年(壇紀4322年) 12月30日 第143號(1)

발행인 鄭在哲
편집인 盧德一
인쇄인 張明錫

東國大學校總同窓會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192-18
성화빌딩 12층
전화: 733-3993(대)
733-3991, 3992, 3993

우편대체 012328-31-0525669
은행지번번호 7500891

“ 동창회 自立運營體制 개막 ”

제18회 東國人之밤 鄭在哲회장 90년대 본회 운영계획 밝혀

社會界에서 활약하고 있는 全東國인이 한자리에 모여 결속과 우의를 다지는 「제18회 東國人之 밤」이 지난12일 오후 6시반 엠배서디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5백여명의 同門들이 성황을 이룬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제3회 東國文化大賞」 시상식과 「동국을 빛낸 同門祝賀宴」이 함께 베풀어져 전東國인의 힘찬 전진과 화합을 기약했다.

〈상보4면〉

이날 본회 鄭在哲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89년도는 나라 안락과 모교, 동창회, 모두가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었던 한해」라고 전제하고, 「지난88년 이후 본회의 당면문제인 財政難을 타개하고 본격적인 自立運營體制를 공고히 하기위해 총동창회 運營委員會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鄭회장은 총동창회의 자립운영 기반을 확고히 함으로써 本會의 活性化를 도모해 나갈 것과 「향후 제학생들이 내오던 장학비제도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90년대를 향한 총동창회 운영계획을 밝혔다.

또 「명년부터 총동창회와 학교, 재단, 종단 등이 망라된 東國發展後援會를 통해 1백억 기금모금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하고 전東國인과 불교계의 역할을 모아 거역적

인 東國發展을 추진할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池昌勳(합경북도지사)李鍾國(서울특별시경관국장)黃勝敏(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장)등 문등 10명의 東國을 빛낸 同門에게 축하패가 수여됐고, 金慧法(신용장학회 이사장)등 문등 14명의 유공동문들에게 공로패가 각각 수여됐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佛敎全書」 전10권을 완간한 공로로 관계교수들을 대표하여 모교 李智冠총장에게 제3회 동국문화대상이 시상됐다.

이어서 새로이 선임된 本會 제15대 회장단에 대한 소개가 있었으며



참석동문들로부터 뜨거운 환영의 박수를 받았다.

東國發展 後援會 결성 발전기금 1백억원 모금키로

본회는 모교와의 힘아래 東國發展後援會(회장=鄭在哲)를 결성하고 지난달 13일 7백여명의 후원회 명단을 중앙일간지를 통해 발표했다.

開校90周年을 앞두고 모교발전을 위한 1백억 기금 조성을 목표로 구성된 東國發展後援會는 총동창회 임원 및 각급支部 임원들이 중심이 돼

제정과 불교계 등 거역적인 후원회로 결성됐다.

〈명단8면〉

이 후원회는 오는90년부터 후원회 사무국을 설치, 전동국인의 모교사랑의 뜻을 모아 동국컨벤션센터 건립과 불교종합병원 건립 추진을 위한 1백억원의 후원기금을 모금할 예정이다.

본회 新年人事會

1월17일 개최예정

本會 1990년도 「新年人事會」가 오는 1월17일(수) 오후 6시반 프라자 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정확한 일시는 추후 개별통지 예정>
본회 회장단과 상무이사·이사등 전체 임원진을 비롯해 각급支部와 支會, 지장별 동창회의 임원진과 모교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新年人事會에 많은 성원바란다.

謹賀新年

第15代會長團

會長

鄭在哲

副會長

文泰植

朴辰熙

安蒞蘭

金東正

宋寶烈

李鍾國

權魯甲

鄭相永

金東英

朴完一

金榮龜

李和一

李起彬

監事

金在基

南基一

崔致根

金聖涉

黃龍雲

許文秀

柳周馨

鄭寬溶

南平祐

李世茂

金銘善

朴翊柱

朴竣亨

尹鎰均

李敏輝

李喆鎬

李喆鎬

李喆鎬

李喆鎬

李喆鎬

李喆鎬

본회 運營委員會 결성

財政自立 실현...재 학생 동창회비 안받기로

현재 8천여만원 조성

本會 自主運營 基盤을 조성하기 위한 총동창회 운영위원회의(의장=鄭在哲)가 지난11월 구성됐다. <運營委員會명단 3번> 本會 鄭在哲회장은 그간 본회의 당면문제였던 財政難을 타개하고 본격적인 자립운영체제를 공고히 하기위해 본회 會長團, 常務理事, 理事 등 임원진 30여명을 주축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했다.

그간 鄭회장은 運營委員會의 구성을 위해 간담회와 개별면담을 통해 각계 同門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同委員會의 한달여에 걸친 활동속에 현재 8천여만원의 운영기금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어 本會運營의 自主度 提高에 결정적인 기여를 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본회의 각종사업과 활동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지난88년 7월이후 재학생들의 동창회비제도를 없애고, 鄭在哲회장은 지난12월 열린 제18회 東國인인 앞에서 「학우 재학생 동창회비를 받지 않겠다」는 방침을 천명하고, 총동창회 運營委員會를 중심으로 임원회비와 동문들의 연회비를 독려해 자립운영체제를 이룩해나아가겠다는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따라서 본회가 그간 누적해왔던 2천7백만원의 적자운영이 일소되었고, 신년도 예산이 정상화되어 앞으로 동창회가 한층 활성화될 전망이다.

제2차 會長團회의 제반운영사항 협의해

본회 제2차 會長團會議가 지난8일 오전 8시 프라자호텔 21층 홀실에서 회장단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본회운영에 대한 협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동창회 운영계획에 대한 안건을 다루어 운

영위원회 결성을 통해 본會운영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나갈 것을 의결하고, 운영에신뢰에 회장단이 주력해나갈 것과 여러동문들의 협조를 구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동국발전후원회는 불교계와 재단, 학교, 총동창회간의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활동에 들어가기로 결정했고, 제18회 동국인의밤 개최계획과 제3회 동국문화상 시상안을 확정했다. 이와함께 90년도 신년인사회 개최일정을 오는 1월17일에 개최키로 결정했다.

각급단위 東友會 송년모임 활발 지역동문 모여 친목 도모...임원진 개편도

연말을 맞아 각급東友會와 支部, 支會 동창회에서는 송년모임을 열고 동문간의 친목도모와 동창회의 발전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를 가졌다.

경명대학원동창회(회장=李起彬)·국회의원·本會부회장은 지난 10일 오후 5시 롯데월드호텔 리스탈룸에서 송년모임을 개최했다.

부부동반으로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모임에서는 전임 曹泰(이교양행 대표)·본회 지도위원(회장에게감

사패를 수여하고 同會를 이끌어온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김윤표(1기·세종연구소 설립) 정은표(9기·연화화학자동차(주) 대표이사)김철일(10기·수도주택건설(주) 대표이사) 안병호(11기·신진철강(주) 대표이사) 서옥빈(11기·서용철강(주) 대표이사) 한규범(12기·한일공업(주) 대표이사) 쿠사지(14기·(주) 대우주택 대표이사) 이형집(21기·대성강관인쇄(주) 대표이사) 동부동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고 라득환(17기·(주) 조승물산회장) 동문에게 축하패를 수여했다.

충남대지구부(회장=대전지구부 장=金基錫·대진중교장)는 지난14일 오후 7시 세운성관에서 70여명의 동문들이 모인 가운데 정기총회를 겸한 송년모임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李鳳學대전지 할시장, 金洪萬의원, 金鍾一충남도경국장, 金鍾燮부국장 등이 참석해 지역동문간의 유대를 다졌으며, 행운상품 추첨 등의 순서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대구지구부 경북대구지구부(회장=장=朴達植·대화화삼(주)대표이사)는 지난20일 오후 6시반 팔공관광호텔에서 제10회 東國인인 밤을 열고 동문간의 친목을 다졌다.

부부동반으로 120여 동문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룬 이날 행사에서는 장기자랑과 행운상품 추첨등의 여흥시간을 통해 우의를 나누고, 경주캠퍼스에 조성될 코너라상 건립을 위한 기부모금 순서를 가졌다.

부산지구부 부산지구부(회장=장=南基碩·선화회상교장)는 지난18일 오후 7시 측

상임부회장에 崔致根동문

사무국이사 신임국장 盧德一동문

本會 常任副會長에 崔致根(49문화·대한언론인회 理事) 동문이사 선임됐다.

崔致根 상임부회장은 인문계 인문로서 東亞·朝鮮·韓國日報 기자로 출발하여(株)문화방송·경향신문 편집국장장과 연수실장등을 역임했고, 한국언론광고(주) 상무이사, 한국언론인협회 理事등으로 활동해 왔다.

崔부회장은 본회 회장단의 유일사항등 제안업무를 관장해 본회운영의 제반사항을 담당해 나가게 된다.

한편 본회 신임 事務局長에는 盧德一(65농림·모교 학교인 주일교원)동문이 12월 1일자로 발령됐다.

신임 盧국장은 모교 ROT



▲崔致根부회장



▲盧德一국장

C 3期로 임관해 대장장, 한남대학교 학군단장, 도지사 조성관, 모교 화순군 주일교관등을 거쳤으며, 동국대 ROT 총동문회 사무국장으로 활동해 왔다.

61經濟科동기회 회장에 金濟局동문

61年 經濟科同期會는 지난19일 오후 6시반 타워호텔 레스토랑에서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및 송년모임 행사를 가졌다.

부부동반으로 모여 동문간의 친목을 다진 이날 모임에서 同會의 새회장은 金濟局(간남고려병원·간남의원 理事長·본회 상무이사) 동문을 선출하고, 부회장은 金世寧 金大元 동문들, 총무에는 李奭彬동문, 감사에는 陳宗龜동문을 각각 선임하고 회발전에 임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惠東會 송년모임 새회장에 李殷毅동문

惠東會(회장=池昌勳·한경 북도지사)는 지난11일 오후 7시 대명호텔에서 송년모임을 가졌다.

해화전문 출신동문들의 모임인 同會는 이날 송년모임과함께 임원진을 개편해 회장에李殷毅(현성문수(주)회장·본회이사·사진)동문을 선임하고 부회장은 朴應燾 金淳泰동문, 총무에 安福錫 동문을 각각 선임했다.



▲李殷毅부회장

동국라이온스 창립 2주년 제 2 대회장에 鄭寬溶동문



東國라이온스클럽(회장=鄭在哲)의 창립 2주년 총회와 송년의발행사가 지난6일 오후 7시 롯데월드호텔에서 열렸다.

80여명의 라이온과 네스가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 동문들의 제 2 대회장은 鄭寬溶(58법학·대한석탄공사이사장·본회부회장)제 1 부회장이 선임됐다.

이에따라 同클럽의 제 1 부회장은 朴俊亨(63경제·신라교역(株)대표이사·본회 부회장)제 2 부회장은 金濟局(61경제·간남고려병원, 간남의원 理事長·본회 상무이사)제 3 부회장이 각각 승계 선임됐으며 총무에는 南基一(72경영·삼영유지(株)상무이사·본회이사), 재무에는 林錦澤(67상학·신안은행 롯데빌(노시점장) 동문)이 각각 선임됐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8월 무료개간수술 의료봉사 활동에 공헌한 文泰植 金慶步 朴煥亨 秋東憲 鄭鉉희 洪平友

金洛天 趙漢勇동문에게 총재메달이 수여됐고 金濟局 林錦澤 南基一동문에게 공로패가, 가던 라이온인 崔允植동문에게 감사패가 수여됐다.

同클럽의 제 2 대회장으로 취임한 鄭寬溶동문은 총무처 행정관리국장, 청와대 사정수석비서관, 총무처장관, 내부부장관 등을 역임했고, 본회 부회장으로도 활동해왔다.

「東國人名錄」 발간 지연

제작일정에 차질, 同門의 양해있길

본회가 추진해온「東國人名錄」 제 6집 발간작업이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당초 12월에 발간기로 했던 예정기한을 넘겨 지연되고 있다.

본회는 그간 각급支部·支會와 동문들의 협조속에 동문연

황을 접수해 원고를 정리하고 이를 모데로 편집을 완료하여 교정을 마친 상태이며, 제작예산이 확보되는대로 동국인명록 발간사업을 계속 추진해 근시일내에 발간할 예정이다.

同門여러분의 참여를 바랍니다

“동국사랑의 뜻을 年會費 납부로”

본회에서는 신년도부터 전同門의 성원속에 自主財政의 기반을 다지고자 합니다.

총동창회의 운영은 동문 한사람 한사람의 관심과 성원이 합쳐져야만이 그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수 있으며, 모교의 발전에도 보다 적극적인 후원을 보낼수 있습니다.

이에 1990년도는 東友會報를 받아보고 있는 同門 여러분을 중심으로 년회비(1만원) 완전 납부를 목표로 自主財政의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입니다. 同門 여러분의 뜻있는 성원을 기대합니다.

- ◇年會費: 常務理事 20만원
- 理事 5만원
- 一般會員 1만원

◇납부방법: 은행지로(7500891)

우편계좌(012328-31-0525669)

東國大學校 總同窓會

희망찬 90년대 기약한 東國人 큰잔치

제18회 東國인의 밤 詳報

東國의 기상으로 국내의 곳곳에서 활약해온 동문들이 자리를 함께하여 우의와 화합을 나눈 「제18회 동국인의 밤」 큰잔치가 지난 12일 오후 6시 30분 소피텔앤배서더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려 鄭在哲 회장과 文泰植 崔致根 金東英 부회장을 비롯한 회장단, 金殷夏 고문, 李智冠 모교총장, 朴玄愷 재단이사장 직무대행 등 모교간부, 경향각지의 동문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교 1백주년을 내다보며 새로이 도약하는 동국의 앞날에 대한 힘찬 전진을 다짐하였다.

5백여 동문 참석 한 큰잔치

해를 거듭할수록 많은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 아래 뜻있는 결속의 자리로 그 모습을 성숙시켜 가고 있는 이 「동국인의 밤」 행사는 盧德一 사무국장의 사회로 국인의례, 제3회 동국문화상 시상식, 축하패 및 공로패 수여, 회장인사, 총장·이사장축사, 제15대 회장단소개, 축하케익절단, 교가제창의 순서로 본 행사를 마치고 2부연회에서 축하선물증정, 행운권추

첨등을 진행했다. 이날 제3회 동국문화대상 시상식에서는 올해 「한국불교전서전10권」을 발간한 공로로 모교교수들을 대표해 李智冠총장에게 상패가 수여됐다.

제3회 東國文化賞 시상

동국문화상은 지난 86년 건학이념 구현과 모교의 명예를 빛낸 동문들의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올해는 지난 20여년간 각고의 노력 끝에 한국불교 1천 6백여년 동안의 모든 불경과 서적을 총망라해 「한국불교전서전10권」을 발간함으로써 불교학 및 한국학 연구에 큰 기여를 한 공로로 李智冠총장에게 수여됐다.

東國을 빛낸 동문에 축하패

이러 동국을 빛낸 동문에게 수여하는 축하패 및 공로패 수여 순서에서는 함경북도지사에게 취임한 池昌勳 동문 등 10명에 대해 축하패가, 본회와 지부발전에 공이 큰 金憲法 동문 등 14명에 대해 공로패가 각각 전달됐다.

이날 鄭在哲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89년은 나라가 정치,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모교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회장단을 비롯한 동창회원들이 용기를 북돋아 오늘 동국인의 밤을 개최하게 됐다』 며 지금까지 동창회가 긴축재정의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총동창회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현재 8천만원에 조성하는 등 자립기반이 마련됐으며 2년내에 동창회관 건립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힌 뒤 『내년은 8만 동문의 희망찬 한해가 될 것』 을 기약했다.

동창회 자유운영 다짐

또한 李智冠 모교총장과 朴玄愷 재단이사장 직무대행은 각각 축사를 통해 지난해 모교사태로 물의를 빚은 일을 사과하고 새해에는 동문모두에게 부처님의 가호를 기원한 뒤 모교에 대한 동문들의 애정이 계속 이어지길 당부했다.

이어 제15대 회장단 소개 순서를 갖고 참석한 동문들의 우의와 같은 박수속에 축하케익을 절단하고 교가제창으로 1부 행사를 마무리지었다.

행운성수에 행운상품추첨

2부 연회순서에서는 1백여명의 동문과 지회에서 협찬하여 마련한 행운상품을 추첨하여 번화가 호명될 때마다 함성과 축하의 박수로 분위기가 무척 뜨거웠는데 추시산에서 펼쳐진 행진 이날 행사는 오랫동안 단난 선후배·친友·형님들과 인사를 나누며 우의를 다지는 흥겨운 모습으로 가득했다. 한편, 이날 행운상품추첨에서는 權映洙(64법학) 동문이 특등을 차지 많은 동문들의 축하와 부러움속에 음성다중TV를 선물받았다.



이런 「제18회 동국인의 밤」 행사에는 경향각지의 동문들이 참석해 큰 성황을 이루었다. (사진은 회장인사, 사진 중은 공로패 전달, 사진지는 축하 케익절단 장면)

축하 공로패 수상자

이런 東國인의 밤 행사에서는 동국을 빛낸 동문 10명에게 축하패가, 본회와 지부 발전에 공이 큰 동문 14명에게 공로패가 수여됐다.

	▲池昌勳 동문		▲李鍾國 동문		▲金在基 동문
	▲黃勝敏 동문		▲李康坤 동문		▲鄭在男 동문
	▲李準鎬 동문		▲崔成豪 동문		▲裴玉順 동문

<축하패 수상자>

- ◇池昌勳(52경계) 함경북도지사 취임
- ◇李鍾國(57경문) 서울특별시 경찰국장취임
- ◇申末業(89행원) 육군참모차장취임
- ◇金在基(60경세) 한국주재원 행부행장취임
- ◇黃勝敏(88경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취임
- ◇李康坤(83행원) 제33회 행정고시합격
- ◇鄭載男(88법학) 제23회외무고시합격
- ◇李準鎬(88경계)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3관왕
- ◇崔成豪(89법학) 제31회사법시험합격
- ◇裴玉順(89한의) 1989년한의사국가고시수석합격

이사장

- ◇李海權(61경문) 동영회 총무
- ◇李德秀(71법학) 동진회 회장
- ◇金濟高(61경계) 총동창회 사무이사
- ◇金炯國(62경외) 태평양 그룹 동우회 회장
- ◇元容敏(63경문) ROTC 총동문의 회장
- ◇安秉憲(64화학) 성북동문회 지도위원
- ◇李能熙(65상학) 태평양그룹 동우회 고문
- ◇車重根(68상학) 유한양행 동우회 회장
- ◇楊潤基(70상학) 중앙화재보험(주) 동우회 회장
- ◇鄭萬杓(71농경) 농업진흥공사 동우회 회장
- ◇李千浩(79행원) 천안시동문회
- ◇李昌雨(85사회) 사회과학동창회 총무
- ◇金富煥(86한의) 울산시지회

<공로패 수상자>

- ◇金憲法(73행서) 신홍장학회

행운상품 협찬동문

- | | | |
|-------------|-------------|-------------|
| ◇고문·지도위원 | ▲金鎔貞(59 철학) | ▲許天澤(61 영문) |
| ▲崔載九(52 국문) | ▲李茂永(71 경계) | ▲安紀聲(73 국문) |
| ▲柳根昌(49 문학) | ▲安鍾振(59 영문) | ▲任千準(54 국문) |
| ▲金憲法(73 행서) | ▲洪忠賢(63 사학) | ▲金正雄(63 법학) |
| ▲曹奎(77 경원) | ▲趙重鎮(58 정치) | ▲李仁禎(72 상학) |
| ◇회장단 | ▲朴珍秉(58 경제) | ▲權連玉(75 행원) |
| ▲鄭在哲(52 정치) | ▲薛鏞(58 경제) | ▲朴三善(55 법학) |
| ▲宋寅烈(57 경계) | ▲慎順範(61 정치) | ▲張幸相(67 대원) |
| ▲尹鎰均(69 행원) | ▲鄭振基(62 법학) | ▲金天壽(56 경계) |
| ▲金東正(57 법학) | ▲梁正五(81 행원) | ▲朴忠一(58 대원) |
| ▲許文秀(57 경계) | ▲姜秉國(68 농경) | ▲金鍾權(58 정치) |
| ▲金在基(60 경계) | ▲池昌勳(52 경계) | ▲金道腹(51 정치) |
| ▲黃龍雲(54 경계) | ▲李麟翼(62 법학) | ▲平福昌(58 정치) |
| ▲柳岡馨(57 농학) | ▲明筆堂(81 행원) | ▲金完式(71 농학) |
| ▲朴俊우(63 경계) | ▲柳國衡(64 상학) | ▲趙集成(52 경계) |
| ▲金東英(60 정치) | ▲李在喆(65 경계) | ▲安煥燮(52 경계) |
| ▲洪正道(62 정치) | ▲李相律(57 법학) | ▲김재주(65 정치) |
| ▲李相律(57 법학) | ▲朴壽哲(57 입학) | ▲김종우() |
| ▲白永哲(62 법학) | ▲金在泓(60 경원) | ▲金萬植(63 경원) |
| ▲朴鍾允(59 경계) | ▲崔在熙(60 경원) | ▲金德沃(70 경원) |
| ▲李允心(79 행원) | ▲閔丙璣(63 정치) | ▲金洪萬(71 행원) |
| ▲成鎮慶(62 법학) | ▲尹富成(63 생물) | ▲趙敏雲(56 경계) |
| ▲鄭大鎬(63 법학) | ▲鄭大鎬(63 법학) | ▲김희형(60 법학) |
| ▲鄭喆喆(60 경원) | ▲崔聖和(56 국문) | ▲張明根(54 행원) |
| ▲崔聖鎬(52 국문) | ▲金龍莫(59 경계) | ▲李存立(62 경계) |
| ▲李鍾萬(53 경계) | ▲張亨植(60 정치) | ▲본대훈(61 정치) |
| ▲彭志植(61 경계) | ▲金仁寶(67 농경) | ▲박재근(75 행서) |
| ▲金松源(64 상학) | ▲劉基天(70 행원) | ▲유정우(63 법학) |

- ▲양수성(65 경영)
- ▲김용구
- ▲박조희
- ▲김만윤
- ▲이광근
- ▲박문기
- ▲金淳泰(52 경계)
- ▲민병인
- ▲金泰佑(63 화학)
- ▲김세명

◇지부및 지회

- ▲조흥은행동우회
- ▲흥국생명동우회
- ▲주택은행동우회
- ▲중앙화재동우회
- ▲한국투자신탁동우회
- ▲제일은행동우회
- ▲철도청동우회
- ▲국외동우회
- ▲경원과동문회
- ▲명성여중동우회
- ▲울산지회
- ▲경남지부
- ▲동영회
- ▲동진회
- ▲뽕녀회
- ▲성북동우회
- ▲동우회
- ▲대평양동우회
- ▲조선매주동우회
- ▲한일은행동우회
- ◇모교간부
- ▲李智冠총장

모교 신입생 경쟁률 6대1

前後期 분할모집으로 경쟁률 상승

지난 11월24일 마감된 모교 90학년도 신입생모집 입학원서 접수결과 총모집인원 3천1백24명에 1만8천4백76명이 지원해 5.91대1의 경쟁률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경쟁률 4.01대1보다 크게 상승한 것으로 90학년도부터 일부학과는 전후기 분할모집설시가 높은 경쟁률을 유도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캠퍼스별 접수상황은 서울캠퍼스가 5.24대1, 경주캠퍼스가 6.65대1로 나타났다. 연극영화학과가 27.03대1로 지난해에 이어 최고경쟁률을 나타냈다.

최근, 수험생들에 대한 학력고사는 지난 15일 시행됐으며 후기전형은 전기합격자가 발표되는 다음날인 오는 29일부터 90년 1월6일까지 입학원서를 교부하며, 원서접수는 90년 1월3일부터 6일까지, 입학고사는 1월23일에 치르게 된다.

總長후보선출 중단 학생들 투표장 접거농성

모교 제12대 총장후보선출을 위한 선제교수비상총회가 지난 10일 오후 1시 모교 중앙도서관에서 열린 예정이었으나 학

생들이 회의장을 점거농성하여 총장후보선출이 무산됐다.

이번 총장후보선출에는 李哲冠현총장을 비롯해 6명의 교수가 출마했으나 張源宗(경제과) 朱宗桓(농경과) 韓相範(법학과) 李昌培(영문과) 교수가 사퇴해 李忠장과 申國柱(정의과) 교수에 대한 투표가 이날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李忠장의

후보출마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회의장을 점거농성함에 따라 총장후보선출은 일단 중단되게 되었다.

모교 교수·학생·직원대표는 지난달19일 전체교수들의 직접 비밀투표로 내년 1월17일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자기총장후보 2명을 선출해 재단사사회에 추천키로 합의한바 있다.

신라문화학 학술 심포지엄 경영관리학 韓獨 불교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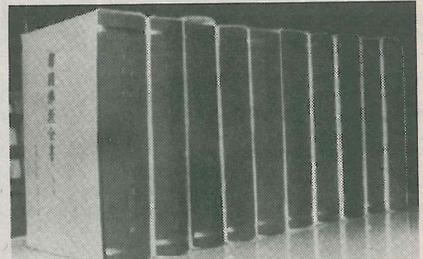
「제8회 신라문화학술심포지엄」이 모교 신라문화연구소(소장=金相鉉교수)주최로 지난11월23일 오전10시 경주캠퍼스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신라문화학과 불교」란 주제로 열렸다.

이날 심포지엄 1부에서는 신라의 황가 도술기에 관한 연구논문이 발표되었고 2부에서는 참석교수들의 주제토론이 있었다. 한편 모교 경영관리연구소(소장=趙熙榮교수)는 현대 한국불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의 폭을 넓히기 위해 특히 독일 Konrad Adenauer 재단 공동주최로 「제2회 韓獨불교세미나」를 11월22일과 23일 양일간 타워

호텔 웰비코룸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경제발전과정의 불교적 영향」 「불교와 사회현대화」 「불교와 사회·정치적 변화」 등의 주제는 문 발표와 「현대불교와 한국사회의」에 대한 기조연설이 진행되었다.

한국불교전서 完刊 1600년 佛敎文헌 총수록



고려속장경이후 우리나라최초로 한국불교의 문헌을 총수록한 「한국불교전서 전10권」이 불교계는 물론 관련학계의 비상한 관심속에 모교에서 완간되었다.

우리나라 불교사상의 맥락을 밝히고 이를 계승하기 위하여 모교는 1970년초부터 한국불교 1600년의 현존사적을 모두 수집하여 정리할 목적으로 7년간의 자료조사와 목록정리를 거쳐 1979년제1책을 간행했으며 20년간의 이번호에 10책을 완간하였다.

이 전서의 특징은 다른나라의 대장경·불교전서류가 자료별 내용별로 분류한것과는 달리 시대순·저자별로 분류해 우리나라불교사상의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수 있게 하였을뿐아니라 한국불교가 중국·일본과는 달리 끊임없이 종파적 대립을 지양해 오 역사적 특성을 반영했다.

모교 출판부는 「한국불교전서 전10권 완간기념회」를 지난 11월14일 오후 6시 하얏트호텔 로토스룸에서 鄭在哲本회회장, 李冠冕교총장, 徐敏표학술원장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동국인의 집」을 이용합시다

「동국인의 집」가맹업체 및 할인카드 이용회원 모집

모교에서는 동국가족의 애교심 함양과 보다 효율적인 후생복지실현의 일환으로 재학생과 교·직원, 동문 및 그 직계가족이 운영하는 가맹업체를 가맹점으로 하는 「동국인의 집」 체인제를 실시합니다.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이용있으시길 바랍니다.

1. 사업개시일 : 1990년 3월 2일(예정)
2. 가맹업체 모집기간 : 1989년 12월 1일~1990년 1월 15일
3. 회원가입기간 : 1989년 12월 1일~1990년 1월 30일
4. 가입자격 : ①동국대학교(원) 졸업생및 그 직계가족
②동국대학교(원) 재학생과 교직원및 그 직계가족
5. 가맹업체및 회원특전 : ①모교 부속병원및 시설물이용할인
②전국사찰(조계종) 출입시 할인(협의중)
③모교 지정업체 이용시 할인
④재학생과 졸업생의 부업및 취업일선
⑤가맹업체 수혜제작 배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교 후생복지과로 문의바랍니다.

<전화> (02)267-8131~9 (교)3555, 3556

교무처장에 金泰弘교수

학술부장에 金勇基교수

모교당국은 지난 10월27일 金正根 교무처장의 후임으로 신입교무처장에 金泰弘(무역과)교수를 임명했다.



▲金泰弘교수



▲金勇基교수

金泰弘신임 교무처장은 지난82년 모교교수로 부임해 그동안 정보산업대학원학장으로 재직해왔다.

한편 모교당국은 지난11월 1일자로 학술부장에 金勇基(수교과)교수를 임명발령했다.

金泰弘신임교무처장의 약력은 다음과 같다.

▲1965년-연세대학교 정의과
 ▲1970년-미국 메릴랜드 대학원 경제학석사학위취득▲1982년-모교 경성대학 무역학과 조교수로 부임 ▲1987년-단국대학교 대학원 경제학박사 학위취득 ▲1987년11월10일-모교 정보산업대학원 학장취임.

체신부 通信工事면허업체

世宇電子通信公社

TEL: 273-4048 (代)

- 각종 通信設備 유지 보수
- 각종 通信機器 제작 및 설치
- 전자식 자동교환기 및 키-폰
- FAX·TELEX, 인타폰, MDF설치
- 컴퓨터및 SOFTWARE 용역

대표 趙椿煥 (74경영)

중구 을지로 4가 315-1 무궁DD 510호

桃園꽃집

화환·꽃바구니
생화·신부화
화문·농·서양란

TEL: 266-4571
야간: 602-4806

대표 辛承水 (72경영)

서울·중구 충무로 4가125-1
진압빌딩 3층 42호

회비... 1년에 1만원

회보제작·장학기금마련·사무국운영에 긴요

주체적인 참여의식을 갖읍시다.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同門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뜨거운 격려속에 總同窓會는 사무진화를 통한 동문 조직강화와 모교발전 지원사업을 계속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同門여러분 스스로가 總同窓會의 주인이러는 주체의를 갖고 自立運營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기 위한 會費납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本會사무국(733-3991~3)으로 문의바랍니다.

회비내역

- 一般會費... 1만원
- 理事會費... 5만원
- 常務理事... 20만원
- 監事... 회원수대로
- 會費... 1만원
- 會費... 20만원
- 指導委員... 20만원
- 副會長... 50만원
- 會長... 100만원

납부내내

- ①은행지표이용(7500891)
- ②전화주서면 방문수납

東國大學校總同窓會 事務局

東國 100周年향한 도약의 10年

동창회, 80년대의 발자취

○80년대는 본會와母校가
다같이 재도약을 위한 기초를
다져준 한시대였다. 본회는 財
政自立的 기반의 조성, 모교지원사
업의 확대, 동창회관 건립, 동
문조직의 활성화등을 끊임없이
추진해왔고, 모교 또한 서울캠
퍼스 확충, 醫大설립등 발전적
인 측면을 보여주었다. 본회는
지난 80년대를 되돌아보면서
90년대를 향한 발전적 지표를
살펴본다. <편집자註>

80년대 벼두 東國山岳會의 마
나슬투봉 등정, 李載燮(78국문)
동문의 파랑새호의 대령원 일
단 성공등은 우리 東國人들에
게 80년대를 여는 낭보였다.

81년 총동창회는 鄭在哲회장이
11대회장에 취임하면서 거
듭나기 위한 제반사업으로써 동
창회관 건립, 조직강화, 장학사
업의 확충등에 힘써 새로운 발
전의 전기를 맞았다.

동문들의 숙원이었던 동창회
관 건립사업은 85년 제15차정
기총회에서 결의되고 85년도 일
반동문들의 연회비 전액을 건
립기금으로 적립하는등의 노력
을 기울여 왔다. 그후 86년 7
월에는 그동안 모교에 있던 본
회 사무실을 교외로 독립 이
전시킴으로써 동창회관 건립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또 회
관건립사업은 2년여동안 2억
원의 기금을 마련, 현재 각계
동문들과 동우회의 성원속에
부지를 뽕뽕이며, 본회가 추
진해야 할 90년대의 주요 사
업이었다.

運營整결성도 큰성과

이와함께 80년대는 본회가 자
立運營體制를 마련코자 조직강
화와 회비납부 독려, 방문수납
제등에 역점을 기울였다. 또 회
근에는 재학생들의 동창회비납
부채도가 폐지됨으로써 다스란
의 재정입력이 초래됐으나 총
동창회 운영위원회가 조직되어
명실공히 財政自立的의 난제를
결체 된것은 80년대의 주요한
성과라 하겠다.

한편 본회는 각급단위 東友
會의 조직강화와 동문주소록과
악, 東國人名錄발간 등의 사업
을 펼쳐 현재 2백60여개의支
部·支會가 국내외 각지에서
동무간의 유대강화와 본회발
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본회는 87년에 회원관
리의 효율화를 위해 컴퓨터
시스템을 도입하여 전동문의현
황을 전산관리하는 획기적인계
기를 맞이했다. 여기에 83년에
는 1천여명의 東國人名錄1제

효율적 회원관리에 기여 ▼하고있는 전산시스템



년대 들어 직간접적으로 그 폭
을 넓혀 나갔다. 동국70주년기
념 장학금이 모교에 80년 1학
기 1천1천원의 증액까지 지급되
고, 고시학사에 대한 지원금이

신설돼 후배들의 면학의욕을
높여주었다. 또한 체육기금을
통한 체육부 지원등도 80년대
동국체육의 명성에 일조해 온
바 있다.



제2회 동국문화상 시상 식겸 체육인의 밤에 참석 한 율림픽션수단

또한 계산고시학사를 기증한
朴桂山동문, 후문을 건립해준 鄭
相水동문등 각계 동문들이 모
교지원에 기여한 점등도 80년
대에 빼놓을 수 없는 업적들
이다.

또한 각계에 진출해있는 동
문들의 활약상도 동국인의 긍

지를 드높이는데 큰 몫을 하
기도 했다.

各界同門들 맹활약

교육계에서는 玄本孝(제주대)
金翰周(경기대)李智冠(모교)金
三龍(원광대)曹武成(광운대)白
永哲(관동대)李鍾出(세종대) 동
문들이 총장으로 활동했고, 금융
계에는 은행장 2명(宋實제임은
행·黃龍雲부산은행)과 부행장
(金在基주택은행) 1명을 배출했
다. 정계에서는 鄭在哲동문의정
무장관 취임을 비롯 鄭寬鎔(총
무·내무)李憲培(교통)李憲瑞
(동자)張基禧(총무)동문등 5명
의 장관이 나왔고, 11대국회에
17명, 12대에 18명, 13대에 17
명이 당선되는 성과를 냈
다.

또 지난 서울올림픽에서는 첫
금메달의 영광을 따낸 金泳南
동문을 비롯해 金光善(금), 金
泰雨(동), 金相圭(동)동문이 맹
활약을 보여준 일도 기억에 남
는 일이다.

이밖에도 경찰계와 문화예술
계 등에서도 東國인의 자력이
두드러졌다.

본회는 86년 東國文化賞을
제정, 시상해줌으로써 이같은
동문들의 위업을 기리고, 후배
들에게 東國전통을 이어주고 있
다.

이제 본회는 보람에 찬 업적
들을 바탕으로 보다 이룬 일
과 새로운 발전계획으로 신년
도를 뚝놓을 수 없는 업적들
이다. 90년대에
도 東國인들의 더 많은 성취속
에 동국중흥과 동문사회의 발
전이 지속돼줄기 기대한다.

"본회의 日就月將을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연말연시엔 늘 주고받
는게 [새해인사]지만 더욱이
다가오는 새해는 새로운 90
년대를 맞는다는 새다른 느
낌이 있어 어느해보다도 의미
깊은 새해가 아닌가 하는생
각.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았던
한해를 보내며, 새해에는 同
門여러분의 건강과 더욱 왕
성한 활약을 기대하며 東國의
기상을 한껏 누릴수 있
도록 모교와 본회의 일취일
정을 기원해봅니다.

東國人的밤에 성원담지

○...제18회 東國人的 밤이
예년과같이 성황리에 끝나 89
년의 매미를 장식.

해마다 경찰각지에서 활동
중인 여러 동문들이 참여하
서 펼치는 콘잔치라 뒀어기



東國대 동문친목동맹조직인

도 많지만, 한산 변함없는 성
원을 보내주는 동문들이 연
시 화제의 으뜸.

이번에도 행운상품들을 힘

찬해주시 兪성 東國人을 비롯
하여 빠른중에도 上京해 자
리를 빛내주시 地方同門 여
러분께 本 동동동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大尾를장식한 두사건

○...모교의 을 입시 경쟁
률이 6對1에 육박했는데,
일부에서는 일부 학과에 분
할모집을 실시했기 때문이라
고 관측.

그러나 동문들은 최근 창
립된 동국발전위원회의 모교
지원의지도 중요한 원인이었
다고 자평하기도.

어쨌든 本 동동동기 이 두
사건이 회망한 90년대를 여
는 청신호가 되길 기대합니
다요.

"입시 열기 상승의 진짜 원인은?"



▲...해마다 동국인의 밤에는
각계 동문의 성원이 줄을이어
사무국직원들을 감동케 하는데,
마산에 있는 金萬植(63 경제
·통교식물(주)대표이사)동문은
급년에도 역시 자사제품을 보

5집을 묶어내어 큰호응을 받
았고, 현재 8만여 동문의 현
주소와 직장등을 수록한 제 6
집이 발간작업중에 있다.

아울러 동문간의 가고역할을
수행해온 東友會報는 85년 지
령 1백호를 기점으로 증면·증
부하여 본회의 모교발전의 매
개체로 꾸준히 성장해왔다.

모교지원사업 확대

本會의 모교 지원사업은 80

내오는 뜨거운 東國愛를 보여
졌다.

▲...서울 강남지회 동문들은
지난달 10일 모교 체육부를 방
문, 패지고기 2마리분을 제공
해 푸짐한 회식을 베풀어 선
수물을 수여했다는 호화한소식.

▲...본회 사무국은 졸업시즌
을 맞아 후배졸업생을 위한 취
업안내실을 운영중인데 경제여
건 열악한지 급년도의 성적은
부진한 실정. 동문기업인 여러
분의 많은 이용을 요청한다.

대우자동차(株)

89년신형 정통고급승용차 탄생

임페리얼 (3,000cc) 계약개시
로말시리즈 (로말프린스·듀크)
월드카모랑 (GSE·올티마·GTE·레이서)

TEL 553-4712

487-7539 (야간) 판매과장: 崔鉉石 (74연영)

서울 강남구 역삼동 832-3 영신빌딩 1층

全國 林野·상가·빌딩 상담 및 안내

公認仲介士 정충철事務所

公認仲介士 鄭宗喆 (86경원)

●全國不動産仲介協會理事
●城東區公認仲介士會會長

전화: (사) 234-4777, 238-9321~2 (재) 233-5799

서울 성동구 옥수동 243-35(국영아파트 경문안)

■西独 보쉬 純正品
연료節減
엔진출력증가/수명연장
■적용차량
현대·대우 기아全車種

BOSCH SUPER
Cu-Electro
Maintenance-free

수입원: 洋陽商事 (대표: 沈載錄·65경영)
TEL. (02) 213-1392/3107 아포터서비스 244-0997

信一金屬센터(株)

황동판·동판·황동파이프
동판지붕재·비철금속

대표이사 金鍾葉 (84경원)

본사: 서울 동대문구 율동동 255-58
☎ 924-6662, 924-6363

世進家具工藝店

TEL: 736-7887, 2311

■가정용 가구 代表 金文煥 (64 경외)
■사무용 가구
■흔레용 가구

서울 종로구 교남동 61-2.
(서대문-독립문 중간)

생일이면 떠오르는...

新羅명과

"실속있고 품위있는 선물을 원하십니까?"

소비자 상담실 863-4040

대표이사 홍 평 우 (70경영)

東國의 희망찬 미래는 우리모두의 보람입니다

겨레의 自燈明으로 나라의 法燈明으로 東國大學校는 韓國大學 教育史에 燦然한 學門의 聖火를 밝혀왔습니다.

우리 東國大學校가 開校90周年을 수년 앞두고 "민족의 대학", "세계의 대학"으로 雄飛하는 시점에서 眞 동국가족과 일치한 佛子는 동국사랑의 한 뜻을 지극한 정성으로 모아야 할 것입니다.

동국대학교총동창회는 八萬동문의 모교사랑을 모아 東國發展後援會를 결성하고 그 기념비적 사업으로서 이미 서울캠퍼스 강종동 일원에 확보된 오천여평 대지에 학술과 문화의 발전을 위한 동국컨벤션센터를 건립하는 것과 수도권에 한방과 양방이 조화를 이룬 불교종합병원의 건립 추진을 위하여 一百億의 후원기금을 모금하기로 하였습니다.

東國을 사랑하는 十萬동국가족 여러분! 그리고 불교종리학교를 慈悲의 佛心으로 지켜주시는 千萬불교신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동국발전의 후원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성과 布施는 큰 광명, 큰 지혜, 큰 힘으로 동국미래의 누리를 밝게 비추일 것입니다.

100億基金 조성을 위한

東國發展後援會

결성에 즈음하여

東國發展後援會

諮問委員 金殷夏 徐煥珪 徐義玄 鄭斗石 鄭在覺 崔載九 黃壽永

名譽會長 李智冠

會長 鄭在哲

副會長

文泰植 (수석)	權魯甲	金東英	金東正	金路善	金聖涉	金榮龜	金容彩
金道復	金在基	金澤鋪	金鎮福	金慧法	南基一	南平祐	文明麟
朴東吳	朴恩會	朴光一	朴玄渥	宋寶烈	宋玄渥	宋寶烈	安容植
吳國一	柳根昌	柳潤馨	尹錫均	李起彬	李敏輝	李世茂	李英駿
李宗鎬	李誌鎬	李和一	鄭寬溶	鄭相承	曹奎	崔載根	崔桐佑
許文秀	黃明秀	黃龍雲	洪鳳來	洪波子	洪澤池		

指導委員

姜東烈	姜斗錫	姜敏	姜美國	姜美鉉	姜錫永	姜宜賢	姜錫邊	姜台錫
姜順賢	康大元	高光德	高文錫	高順福	孔在鴻	孔志浩	孔珍植	具本洪
具秀會	具永學	具滋春	丘在在	權奇休	權錫忠	權連玉	權五甲	權五甲
權載燾	權載燾	古培	金鍾植	金敬福	金益澤	金廣泰	金寶性	金光澤
金光鎬	金教根	金圭錫	金基俊	金基鍾	金吉坤	金奎澤	金大鎔	金大鎔
金大元	金德壽	金德珠	金東吉	金東鎮	金東天	金洛天	金東東	金萬植
金明浩	金茂成	金德泰	金文植	金文煥	金秉萬	金炳潤	金丙學	金炳潤
金福男	金鳳教	金北詰	金恩興	金三龍	金三澤	金相益	金聖洙	金星台
金出水	金松源	金壽煥	金球	金順慶	金勝泰	金勝有	金勝濟	金一
金良奎	金榮信	金榮一	金榮植	金榮澤	金永河	金榮煥	金英煥	金英煥
金容喜	金完式	金旺植	金勇	金龍龜	金容均	金龍洛	金龍煥	金容聖
金容雲	金籍貞	金龍浩	金宇濟	金元植	金月煥	金潤經	金允鍾	金益相
金仁翼	金仁東	金仁鴻	金在國	金在珠	金在鎮	金在衡	金在泓	金定基
金貞愛	金正雄	金正一	金鼎和	金濟局	金宗三	金鍾聲	金鍾樂	金澤欽
金鍾旭	金鍾梧	金鍾逸	金鍾一	金鍾一	金鍾一	金鍾一	金鍾一	金澤欽
金鎮榮	金昌榮	金昌煥	金天壽	金潤一	金春顯	金泰佑	金孝漸	金孝漸
金翰周	金幸男	金聖賢	金賢國	金賢國	金賢國	金賢國	金賢國	金賢國
金孝成	金勳基	金興雨	金熙玉	金熙亨	金熙亨	金熙亨	金熙亨	金熙亨
羅潤榮	羅夢杓	羅夢杓	南金光	南基碩	南都泳	南相龍	南常祐	南時奕
南鍾維	南重祐	南重祐	盧萬植	盧武植	魯柱赫	馬慶子	明亨植	明亨植
明華燾	陸慶夏	陸慶夏	閔慶鳳	閔丙權	閔丙權	閔丙先	閔丙哲	閔慶植
閔鉉哲	閔慶基	閔慶基	朴桂山	朴連圭	朴連圭	朴連圭	朴大鎔	朴大鎔
朴大赫	朴道根	朴東仁	朴洛源	朴滿	朴培根	朴炳培	朴富準	朴三善
朴三郎	朴相文	朴先榮	朴省三	朴壽天	朴壽錫	朴壽哲	朴勝正	朴養源
朴承國	朴業吉	朴承相	朴泳旭	朴承鎬	朴承鎬	朴承鎬	朴龍根	朴龍根
朴殷奎	朴載權	朴在圭	朴正永	朴鍾九	朴鍾國	朴鍾模	朴鍾龜	朴鍾允
朴鍾在	朴鍾浩	朴柱實	朴準翼	朴志遠	朴珍秉	朴贊大	朴昌魯	朴忠一
朴忠煥	朴泰權	朴學洙	朴沆植	朴泰遠	朴海春	朴賢德	朴孝源	朴周欽
朴熙富	潘成太	裴鍾大	白文基	白春欽	白承哲	白正基	白鍾權	白周欽
邊容松	夫東興	徐文度	徐錫九	徐成來	徐承三	徐承三	徐承三	徐潤吉

徐貞允	石明洙	宣晉圭	侯松雄	薛錫	成金燦	成百幸	成鎮慶	孫錫洛
孫錫勳	孫學中	孫漢權	宋武勳	宋錫勳	宋錫球	宋昔煥	宋永仁	宋榮會
宋錫勳	宋寅植	宋在晚	沈昌燾	沈春燾	申東現	申相斗	申鉉燾	申鉉燾
辛克繁	辛承吉	辛敏善	慎順範	慎順範	安國承	安紀聲	安文玉	安文玉
安秉浩	安錫振	安重五	安敬奧	安志根	安泰庸	安煥淳	梁啓炫	梁錫錫
梁在亨	梁正五	梁榮植	楊秀成	楊潤基	魚允浩	吳炳浩	嚴泰根	吳健一
吳國根	吳基斗	吳世雄	吳承泰	吳錫模	吳哲求	吳哲求	吳弘明	王豹淳
禹萬源	禹相享	禹順伊	禹昌昱	禹泰周	元容石	元容燾	元章淵	元光燾
俞永植	俞興穆	劉基天	劉錫鍾	劉錫鍾	柳大烈	柳錫錫	柳承相	柳承相
柳英樹	柳錫洙	柳在善	柳汀宇	柳錫秀	柳錫子	柳錫錫	陸基棟	尹大欽
尹斗玉	尹炳錫	尹宮成	尹山鶴	尹聖純	尹汝達	尹聖純	尹永昌	尹永昌
尹澤								
李光順	李光雨	李光錫	李斗世	李明錫	李明錫	李明錫	李明錫	李明錫
李能熙	李東錫	李東錫	李錫俊	李秉克	李丙錫	李鳳賢	李鳳賢	李鳳賢
李錫錫	李向錫	李相賢	李相倫	李相倫	李相倫	李相倫	李相倫	李相倫
李秀吉	李舜柱	李承	李昇武	李升洙	李衍澤	李榮吉	李榮一	李永子
李承甲	李泳和	李榮載	李仁植	李仁植	李仁植	李仁植	李仁植	李仁植
李正路	李靜順	李貞周	李正煥	李濟坤	李存立	李鍾萬	李鍾萬	李鍾萬
李周炯	李淑杓	李重雄	李知映	李鍾夏	李鍾九	李鍾萬	李鍾萬	李鍾萬
李錫興	李春常	李泰永	李漢雨	李憲鍾	李炳基	李亨執	李錫根	李錫萬
李瑛雨	李勳載	李興南	李蘇一	印丁和	印重植	任英昌	任貞子	任千松
林錫澤								
張明根	張泳俊							
張亨植	全淳杓	全潤杓	錢昌源	田泳和	丁炳燾	丁炳燾	丁炳燾	丁炳燾
鄭求徹	鄭奎完	鄭基燾						
鄭瑛錫								
鄭在哲	鄭在錫							
鄭夏聖	鄭海秀	鄭賢弼	鄭錫仁	鄭錫仁	鄭錫仁	鄭錫仁	鄭錫仁	鄭錫仁
曹義煥	曹重根	曹國衡	趙國衡	趙文榮	趙文榮	趙文榮	趙文榮	趙文榮
趙誠聖								
趙錫秀	趙錫成							
崔重根	崔慶植							
崔炳玩	崔成福							
崔錫福	崔在限							
平福昌	夏永泰	河在龍						
韓玄燾	韓有燾	韓錫錫	咸泳旭	許恩日	許恩日	許恩日	許恩日	許恩日
玄海天	洪起雲							
洪成淑	洪誠杓	洪誠杓	洪元杓	洪元杓	洪元杓	洪元杓	洪元杓	洪元杓
黃慶石	黃慶錫							

會長 鄭在哲



東國大學校 總同窓會

電話 733-3991-3

東國大學校 企劃調整室

電話 267-8131-9